

더 던 매거진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리는 선구자



새벽 잡지

2025년 11월

목차

특집 기사	2
전쟁과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2
성경 연구	31
예레미야의 구출	31
예루살렘의 멸망	36
에스겔의 표징	41
경고받은 백성	46
에스겔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	51
기독교 생활과 교리	55
용기를 내라	55

성경과 함께 따라가 보세요!

전쟁과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부수시며 병거를 불에 태우시느니라.”*

시편 46:9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깊이 들어섰습니다. 세계 정세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해 왔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즐기며 심지어 당연시해 왔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 긴장이 사상 최고조에 달했음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전쟁, 테러 행위가 이제 우리의 헤드라인과 뉴스 보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광란에 사로잡혀 많은 이들이 생존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지상에서 선과 악의 세력 간 투쟁이 진행 중이다. 무장 호소가 있었고, 이는 폭력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졌다. 개인들에게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싸움에 참여하라'는 막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인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중요한 결정에 직면합니다. 성경은 폭력, 전쟁, 살인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은 어떻게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이어지는 논의가 독자들이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묘사된 하나님

성경은 종종 전쟁 용어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민수기 11:10, 33에 언급된 "여호와와 그의 진노"와

"여호와와 분노"가 그 예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소멸하는 불"과 같으시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24; 히브리서 10:31). "보복과 갚음은 내게 속한 것이니라." (신명기 32:35).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정하신 때에 열방을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시는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0:5; 15:3

이스라엘의 전쟁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실 때, 그들에게 군대별로 인원을 계수하라고 지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그 가족대로, 그 조상의 집대로, 그들의 이름 수대로, 모든 남자를 계수하여 계수하라. 스무 살 이상으로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이 군대별로
계수하라." 민수기 1:1-3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에서 종종 전쟁의 지도자들에게 이끌렸다.
"여호와와 그의 군대 장수" 여호수아는 천사로부터
여리고를 어떻게 멸망시킬지 지시를 받았다.
(여호수아 5:14; 6:2-5). 나팔 소리와 신의 개입으로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완전히 파괴되었다."
여호수아 6:20,21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셨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나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나의
손가락을 싸우게 하시는 나의 선하심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의지하는 이시요 내 백성을 내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144:1,2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마리의 말과 병거로 이루어진 군대에 쫓길 때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니,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는 것이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출애굽기 14:10-14).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구원받았으며, 이집트 군대는 멸망하였다.

후일의 경험을 기록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미디안

자손에게 복수하라 ...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 몇 사람을 무장하여 미디안 자손을 치러 보내라 ...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각 지파마다 천 명씩을 보내어 전쟁에 나가게 하라 ... 그들이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더라.” 민수기 31:1-8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구약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전도서 3:1,3,8에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나니: ...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들을 살인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수많은 과거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 관점에서 논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온갖 노력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지혜롭게 묻습니다. "사람이 수고하는 일에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셔서 그 안에서 수고하게 하신 수고를 보았노라." 9,10절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일의 결론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니,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13,14

사랑의 하나님

앞서 살펴본 바에 비추어, 이제 우리는 많은 이들이 제기하는 정당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듯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요한일서 4:8,16; 신명기 12:2; 20:17).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오직 너희를
알았노라." 아모스 3:2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져 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주목하라: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내게 붙게 하였노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 이름과 찬송과 영광을
위하여 내게 속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스라엘 온 집안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13:11; 31:1).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14)

가나안 땅은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의 "씨", 즉 이스라엘의 후손에게 약속된 땅이었다. (창세기 11:31; 12:5-7). 그러나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정당한 상속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민족들이 그 땅에 정착해 있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약속의 땅에는 끔찍한 상황이 존재했다. 그 땅을 점유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 아모리 사람 등 다른 민족들은 매우 타락하여 온갖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심지어 거짓 신들과 종교와 연관하여 인간 제물까지 바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신명기 18:9-14). 그들의 악행과 타락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지혜와 공의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자신의 지시를 따라 더 높은 문명 수준에 도달할 백성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을 지시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허락과 지시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은 이스라엘과 율법 체계를 세우셨다. 그들은 그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을 것임을 이해했다. 그 율법 중 하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출애굽기 20:13).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은 끊임없이 그들과 전쟁을 벌였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적들이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라고 하셨다. 레위기 26:3,6-8,14,17

일시적인 상황

구약성경 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악과 증오, 전쟁과 가난이 만연한 현 시대가 일시적인 상황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모든 전쟁과 증오, 절망과 가난을 없애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천국()이 세워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리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내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2:4; 11:9

신약성경의 전쟁 관점

이제 신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자. 여기서 곧 변화가 일어났음이 분명해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르게 대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그의 아들 예수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이 되시기 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그리스어: 로고스]"이라 불린다. (요한복음 1:1). 같은 장 후반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0,11절).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은 자"라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들에게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사야 53:3

빌라도가 우리 주님의 재판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물으시되, "그리스도라 일컬어지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하니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마태복음 27:22).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듯이,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고 손을 씻었다. "그때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하니라." (마태복음 27:25)

예수님의 사역 내내, 그분은 이스라엘을 돕고자 간절히 원하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게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으려 하였더니!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하려 하였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황폐하게 버려지리라." (누가복음 13:34,35).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추구해 온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지속적인 축복과 번영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리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자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으니) 오늘날까지 그러하도다." 로마서 11:7,8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보기들

이제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관계의 목적을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바가 없기를 원하노니 우리 조상들[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홍해를 건넜느니라... 이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들처럼 악한 것을 탐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1,6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경고를 받고 이스라엘의 실패로부터 배울 기회를 얻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어떤 부분도 무조건적으로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12:3).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속받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상속자들

사도 베드로의 말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주어진 것이다"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신 모든 일, 즉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과도 완전히 일치한다. (사도행전 2:39).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도 여전히 이 소망을 품고 있었다. "이 약속을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보고 있느니라." (사도행전 26:7).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상징적으로 말해 잘려 나갔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접붙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개인으로서의 이 이방인들은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열매", 즉 아브라함의 약속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1:17

그때부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개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29). "건축자들[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버린 돌[예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서 빼앗겨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리라." 마태복음 21:42,43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래 누리던 지위는 사라졌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 또한 그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출애굽기 19:6).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한 민족에게 주어졌으니 곧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9). 우리는 이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와 분리되고 구별되며,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모으신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이라고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5:14

폭력과 전쟁의 거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성경에 드러난 가르침의 변화에 있어 확실히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알려지고 받아들여진 폭력과 전쟁의 개념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통해 우리에게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3:34,35). 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래에서 받은 계명보다 더 높은 계명, 더 높은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법은 그리스도인의 언약의 법이며, 사랑의 법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온 모든 자, 영적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37,39)

죄의 결과인 폭력이 오늘날 세상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거의 모든
문화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고 있습니다. 죄의
창시자인 사탄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베드로전서 5:8)고 세상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이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셨으니”(고린도후서 4:4)입니다. (고린도후서 4:4).
사탄의 영향으로 인해 폭력은 오늘날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 이웃 사이, 학교, 교회, 직장,
심지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폭력을 목격합니다.
국가 간의 폭력적 갈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거부하셨으며, 분쟁 해결을 위한 개인적 폭력

사용을 거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8:10,11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종을 향해 칼을 뽑아 그 종을 다치게 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제자들이 주님을 섬기며 힘이나 폭력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군단의 천사들"을 부르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마태복음 26:53). 그분은 개인적인 안녕을 위해 신성한 권능을 사용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없으며, 오히려 기쁘게 그 고난을 희생의 일부로 견뎌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행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께도 계신 마음이니라." 빌립보서 2:5

적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

우리 주님은 또한 원수에 대한 새로운 태도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며 너희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모함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44) 처음에는 이것이 지키기 어려운 높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말은 맞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조차도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일으키지 못할 만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의 상태가 필요합니다. 보복이나 증오의 행동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악이나 불의를 용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가담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약하고 무력한 자들의 억압에 반대한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이들의

사고방식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타인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하지만, 심지어 원수에게조차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아모스 5:15).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샅을 받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8

삶의 원칙

우리 주 예수님은 동정심, 온유함, 자비, 순결, 화평을 이루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을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4-9).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온유함과 절제를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분노와 악의가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며, 항상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겠지만, 완전하고 순수한 뜻을 품고자 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기회가 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자"고 하셨으니, 이 싸움의 세상의 정서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10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결은 평화롭게 살며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증진하려는 노력으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에게 달린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로마서 12:18). 비록 상대방이 우리에게 평화를 되돌려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특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의의 원수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였음이라.” (요한복음 3:19).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지 않으시고, 의의 원칙에 충실하여 박해받을 때조차 원수에게도 이를 실천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에게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마태복음 5:11,12).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기록하였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16).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개인적인 확신을 주신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33

기독교인의 책임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인간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충돌할 때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관한 권면을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둠에서 불러내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그네와 나그네와 같이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이는 영혼과 싸우느니라.” (베드로전서 2:9,11).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29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기심을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여러 교훈을 통해 우리는 이를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태복음 22:21). 또한 우리는 이렇게 권고받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람의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 (베드로전서 2:13).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것을 갚으라. 세금을 내야 할 자에게는 세금을, 관세를 내야 할 자에게는 관세를, ... 존경을 받아야 할 자에게는 존경을.” (로마서 13:7). 이 원칙들은 우리의 훈련된 양심과 하나님의 법이 침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혼란한 세상에서 모든 일을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은 특히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계시해 주신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불같은 시련은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13). 이는 우리가 평생 동안 형성해 온 성품의

유형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 은, 보배로운 돌"로 비유된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다른 재료로 부적절하게 건축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나무, 짚, 짚단"으로 비유된 인간의 이론, 방법, 전통에 따라 세워진 모든 것은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15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나라가 스스로를 속여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화가 오래 지속된 적이 없음을 보아왔습니다. 새로운 갈등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인류의 세상을 영원한 평화의 왕국, 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평화의 왕"이 다스리실 그 나라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사야 9:6,7).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10

마무리 생각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경험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원래의 약속과 관련된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갈등 대부분은 수세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과 관련되었으나, 이방인과 악한 나라들에 점령당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전쟁과 갈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사람이나 세상의 정부에 의해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반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경험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다했다고 보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이 이러한 어려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이 그들을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24

예수님은 폭력과 전쟁의 개념을 거부하셨다. 그분은 본보기를 통해 가르치셨으며,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세우셨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마태복음 22:37,39). 이 새로운 적에 대한 태도는 무력, 폭력, 살인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좇으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12:14

곧 우리의 개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부수시며 병거를 불에 태우시리라." (시편 46:9).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 약속하십니다: "너의 땅에서 다시는 폭력 이 들리지 아니하며 너의 경계 안에서 황폐함이나 파괴함이 없으리니 너는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이사야 60:18). 전쟁과 다른 폭력 행위로 인해 죽임을
당한 모든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5:28,29). 모든 사람은 언젠가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며, 회복되고 완전해진
땅에서 영원히 조화롭게 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결과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의 회복이 완성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3:21

예레미야의 구출

핵심 구절: 왕이 에벳 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가 죽기 전에 감옥에서 끌어올리라 하니라.

예레미야 38:10

선별된 성경 구절:

예레미야 38:1-28

인류 역사 속 하나님의 모든 종들 가운데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독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가 아주 젊은 나이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놀라운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그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르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열국의 예언자로 삼았노라
하셨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어리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어리다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곳으로 네가 갈 것이요,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네가 말할 것이니라.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4-8

젊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인생을 바꾸는
충격이었을지 우리는 잘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태중에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다는 사실이 그에게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모든 민족의 선지자로 예정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비틀거렸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심지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모든 의심은 사라진 듯하다. 우리는 이렇게 읽는다.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을 만지시고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열국과 열왕 위에 세워 뽑고 허물며 멸하고 무너뜨리며 세우고 심게 하노라" (9-10절). 이 놀라운 약속들로 힘을 얻은 예레미야는 사역을 시작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열방에게 두려움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다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했다. 선지자는 시드기야와 그의 관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 종말을 가져오실 것임을 받아들이라고 담대히 말했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었다. 그들이 생존할

유일한 기회는 바빌론의 침공과 예루살렘 정복이 그들의 완고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면 목숨은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관리들은 예레미야를 버려진 우물에 가두라고 고집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백성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이는 반역 행위라고 주장했다. 예레미야가 내려진 우물은 진흙탕으로 가득 차 있었다(예레미야 38:1-6). 우리는 그가 겪었을 신앙의 내적 갈등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가 그곳에서 죽어야 했을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걸까?

예레미야는 시편 40편을 되새겼을지도 모른다. "내가 여호와를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로 돌이키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끔찍한 구렁이에서, 진흙탕에서 끌어올리사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확고히 하셨도다." 시편 40:1,2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백성을 "진흙탕" 같은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신실함과 신뢰의 본은 주님의 백성에게 계속 영감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매우 가까이 계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46:1,2

예루살렘의 멸망

핵심 구절: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 일이 있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음이라 그 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역하였더라.”

열왕기하 24:20

선별된 성경 구절:

열왕기하 24:18-20; 25:1-21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되풀이할 운명에 처한다.” (조지 산타야나, 『이성의 삶』, 1905).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진리에 희생되었다.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악한 왕들이 더 많았던 통치 주기를 반복하며, 이스라엘과 유다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인내를 소진해 버렸다. 그들의

과거는 현재에 아무런 교훈이 되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었다. 열 지파 이스라엘 왕국은 스데기야가 패배하기 약 135년 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에 의해 멸망당했다. (열왕기하 18:9-12). 스데기야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하기로 선택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다가올 심판과 유다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분명히 경고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 성에 남아 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자는 살리라 그의 생명이 그에게 전리품이 되리니 그가 살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겨져 점령될 것이라” (예레미야 38:2-3)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라.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고 이 신성한 벌을 받아들이면 살리라. 저항하면 반드시 질병과 굶주림과 폭력으로 죽으리라.” 겸손을 거부하고 오만함을 선택한 시드기야는 반항의 길을

택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았다. 열왕기하 24:18-20

우리는 이 기록에서 교훈을 얻어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다른 선택지'를 찾지 말라.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것은 없다.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스스로 낮추라. 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기라. 그는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5-7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세속적 욕망에 불쾌하고 거슬리게 느껴지십니까? 솔로몬 왕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내 아들이여, 여호와와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 책망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며 기뻐하시는 아들을 채찍으로 치시느니라" (잠언 3:11-12). 사도

바울은 솔로몬의 권고에 대한 아름다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 우리를 훈계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혼의 아버지께 순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훈계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익을 위하여 우리로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훈계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9-10

시드기야 왕이 우리가 얻은 것과 같은 이해를 가졌다면, 그는 주님께 복종하여 살기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일반적으로 처벌적이라고 인식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교훈과 깨달음은 그분의 징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함 안에서 성장을 촉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징계하십니다. 유다가 순종했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음에도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에스겔의 표징

핵심 구절: "에스겔은 너희에게 표징이니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너희도 그대로 행할 것이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 24:24

선별된 성경 구절:

에스겔 24:15-27

에스겔의 표징은 가슴 아프게도 심오하다. 주님께서 "네 눈의 소원"이라 묘사하신 그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을 것이었다. "한 번에" 죽을 것이다. 상실감과 슬픔을 더하는 것은,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공개적으로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점이다. "너는 애도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며, 눈물을 흘리지도 말지니라. 조용히 탄식하고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지 말며, 네 머리에 터번을 묶고 네 발에 신발을 신으라. 네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의 슬픔의 빵을 먹지 말라. 이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며, 다음 날 아침에 내가 명받은 대로 행하였노라." 에스겔 24:16-18

에스겔이 이 무거운 명령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가 평생 하나님께 순종과 섬김으로 헌신하며 깊이 뿌리내린 믿음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욥이 표현한 그런 믿음,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는 믿음이다. 욥기 13:15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개인적 비극을 이스라엘의 국가적 교훈으로 바꾸시는 데 신적 지혜가 작용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 두 사건은 어떻게 연관되었을까요? 둘 다 "네 눈의 소원"으로 지칭되는 한 가지를 공유했습니다. 에스겔에게는 그것이 그의

아내였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국가 체제를 상징하는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행동에 분명히 호기심을 가졌다. 그가 아내를 애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고, 그들은 에스겔의 행동이 종종 신성한 의도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 이유를 물었다. 백성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24:19

에스겔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성전을 더럽히리라. 너희가 안전과 자랑의 근원으로 삼고, 너희 마음이 기뻐하는 그곳을 말이다. 너희가 유다에 남겨 둔 너희 아들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에스겔이 한 것처럼 할 것이다. 너희는 공개적으로 애도하지도, 친구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위로받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 머리는 가리운 채로 있을 것이며, 신발도 벗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애도하거나 울지도 않을 것이나, 너희 죄로 인해 쇠약해질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서로 신음할 것이다.” 20-23절

성전은 파괴되고, 국가 체제는 해체되며,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다. 따라서 에스겔은 우리의 핵심 구절에서 언급된 대로 ‘표징’이었다. 재앙은 일어났고, 아무리 애도해도 막을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적 양심은 슬픔에 사로잡혀 시편 137편에 나오는 아름다운 시를 낳았다.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노라. 우리는 수양나무 가지에 하프를 걸어 두었노라.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였음이라.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찬송을 강요하였도다: ‘예루살렘의 노래 중 하나를

우리에게 불러라!’ 그러나 이방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부르겠는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하프를 치는 법을 잊게 하소서.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하소서." (시편 137:1-6). 에스겔의 표징에서 가슴 아픈 감정이 솟아난다.

경고받은 백성

핵심 구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내게 대신하여 경고하라."

에스겔 33:7

선별된 성경 구절:

에스겔 33:7-20

어떤 이들은 에스겔서를 참신함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선지자가 다른 행성에서 온 방문자들과의 만남을 기록했다는 주장을 담은 책들이 쓰여졌다. [이는 본지 편집위원회의 견해가 아님] 다른 이들은 "고그... 마고그"로 지칭되는 침략군과 관련된 묵시적 시나리오에 관심을 보인다. (에스겔 38:2). 그 군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촉발한다. 에스겔의 마지막 장들로 나아가면, 새 성전의 약속과 다가올 천년왕국의 영광에 대한 암시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주제들은 성경 연구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만, 이 매혹적인 책에 담긴 또 다른 차원의 엡게일 리스트() 가르침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그 교훈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항상 경계하고 신실한 파수꾼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과 영적 번영을 지켜보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서 에스겔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창세기 4:9에 제기된 오랜 질문, "내가 내 형제의 지키는 자냐?"에 "그렇다, 내가 지키는 자다"라고 확고히 답합시다.

본문의 핵심 구절은 에스겔이 주님께로부터 파수꾼이 되라는 이전의 사명을 받았음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할 때에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나 나는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여도 그가 악과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네 영혼을 구원하였느니라. ... 그러나 네가 의인에게 경고하여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는 경고받은 까닭에 반드시 살리라. 너도 네 영혼을 구원하였느니라.” 에스겔 3:18-21

우리는 남의 삶에 참견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보고 양육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가 있거나 사랑의 위로가 있거나 성령의 교제가 있거나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내 기쁨을 채우라. 아무 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라. 각자 자기의 이익만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찾으라.” 빌립보서 2:1-4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성경적 경계를 명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평가에서 위대해지기를 원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 합니다. (마태복음 23:11; 요한복음 13:14-16). 베드로는 지혜롭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치되 강요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함으로 하지 말고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며, 맡겨진 자들을 지배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양 떼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2,3

하나님께서서는 결국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돌보라는 말씀과 환상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기억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시편 127:1

에스겔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

핵심 구절: “강 가 양쪽에는 먹을 만한 모든 나무가
자라나리니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므로 매달 열매를 맺으리니 그 열매는 먹을
것이요 그 잎은 병을 고치리라.”

에스겔 47:12

선별된 성경 구절:

에스겔 47:1-12

본절은 천년왕국의 영광을 예고합니다. 우리가 수세기 동안 기도해 온 것, 즉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태복음 6:10)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 시대의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과 연결됩니다. 선지자 스가라는 그 물의 독특한 성질을 밝혔으니, 그것은 생수입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生水)가 흘러나와 반은 잿바다(死海)로, 반은 바다()로 흘러갈 것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끊임없이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유일한 주님이 되시며 오직 그 이름만 경배를 받으시리라.” 스가랴 14:8,9

오늘의 교훈을 위한 선택된 성경 구절은 강물의 성장 과정을 묘사합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처음 흘러나온 강물이 그 근원으로부터 천 규빗 떨어진 곳에서 발목까지 차올랐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천 규빗 더 하류로 나아가자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또 천 규빗을 더 가자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사천 규빗 지점에 이르러 물의 범람은 에스겔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강은 너무

깊어 건너려면 헤엄쳐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적이지만 피할 수 없이 온 땅을 채울 것이라는 우리의 이해와 잘 부합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에서 해치는 자도 없고 해치는 자도 없으리니 이는 땅이 바다를 덮는 물로 가득할 것임이라" (이사야 11:9).

에스겔은 이 체험 동안 신적으로 임명된 안내자를 두었다(에스겔 40:2-4). 그의 안내자는 이렇게 경고했다.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내가 네게 보여 주는 모든 것에 네 마음을 두라. 네가 여기 온 것은 내가 네게 그것들을 보여 주려 함이니라.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집에게 선포하라" (4절).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분은 물의 환상 이후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셨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에스겔 47:6). 이 환상의 중요성은 예언자에게,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도 강조되었다.

그 일이 이루어지자 에스겔은 강둑으로 인도되었다. 그의 안내자는 상징적인 언어로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가 골짜기로 내려가 바다에 이른다. 바다에 이르러 그 물이 고침을 받으니, 강이 흐르는 곳마다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리라.” 여기서 우리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에스겔 47:8,9,12).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는 에스겔의 경험을 확증합니다. “그가 내게 생수의 맑은 강을 보여 주셨으니...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으며 매달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민을 치료하기 위함이라.” (요한계시록 22:1,2). 에스겔의 환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용기를 내라

*“주님을 바라는 모든 이여, 담대하라. 그가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리라.”*

시편 31:24

성경은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소망, 확신과 신뢰로 가득 차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해야 할 특별한 이유들을 발견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불신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삶의 기회에서 최선의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죄와 고난의 함정을 보기에, 불신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으며, 하나님도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방식으로 그들의 일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15-17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나아갔습니다. 그 깃발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리고 죄에 대한 대항의 깃발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적들에게 포위될 것입니다. 그들 맞서는 자들 가운데에는 사탄 자신이 있을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대적해 왔듯이 그들을 대적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계획과 그분을 믿는 자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일어난 폭동과 소요, 박해는 사탄이 선동한 것이며, 이후로도 주님의 백성을 억압해 온 것은 바로 사탄이다. 고린도후서

2:11; 11:14; 데살로니가후서 2:7-10; 베드로전서 5:8,9

사탄은 자신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미혹당한 종들을 통해 행하였다(데살로니가후서 2:11). 그는 항상 의와 의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대적해 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큰 용기를 가져야 한다. 만일 그들이 원수의 공격에 용기를 잃어버린다면, 그는 곧 그들을 전투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용기를 잃고 후퇴하는 병사는 전투에서 거의 쓸모가 없다. 용기를 잃기보다는, 우리는 이 땅의 관심사를 아버지께 맡기고, 현세에서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한다. 로마서 8:28

적대자 외에도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영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특별한 신적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종종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런 영은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수천 천사와 만물을 만드셨다. 그분이 너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너무 위대하시고 우리는 너무 미미해서 우리를 돌보실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이 표현한 대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2:12

게다가 우리에게는 타락한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몸 안에 가장 강력한 적을 품고 있습니다(로마서 7:18,25).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분이 성령을 주셨을 때, 우리 안에서 변화 과정이 시작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태동하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1,2; 고린도후서 5:17). 이 태동하는 새 피조물, 즉 새로운

마음과 뜻과 성품은 우리가 지상 상태에서 천상 상태로 넘어가는 부활의 순간, 즉 영적 탄생의 순간까지 우리의 죽을 몸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새 피조물]는 썩을 것으로 심겨지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천한 것으로 심겨지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겨지나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신으로 심겨지나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느니라." 고린도전서 15:42-44

그럼에도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싸워야 할 타락한 성향들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것들을 부인하였습니다—죄를 등졌습시다(로마서 6:1,2,11,12). 우리는 세상의 관심과 소망을 하늘의 관심과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매일의 경험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이기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육신의 성향을 억누르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육신의 연약함과 허약함과 끊임없이 싸우며 어느

정도 이겨내면서도, 주님을 위한 희생과 섬김에 추가로 참여하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많은 용기를 요구하며, 우리 스스로로는 부족합니다. 고린도후서 3:5; 빌립보서 3:3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라는 권면을 받으며, "우리로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립보서 4:13)는 확신을 얻습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용기, 모든 믿음과 소망—싸움에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유익한 요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도록 충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9; 히브리서 4:16). 이는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거나 항상 용기를 온전히 발휘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때로 실패할 수 있지만,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는 실수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용기의 다양한 유형

믿음과 소망이 더 강한 이들은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두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는 강한 용기, 바른 용기라는 의미에서 '선한 용기'입니다. 본문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소망'은 선한 용기, 올바른 용기, 경건한 용기로 뒷받침되고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에서 비롯된 용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려서지 마라. 누구에게도 앞지르게 하지 마라." 전투에서 병사들은 서로 경쟁하며, 지휘관이나 동료 병사들의 박수를 받을 만한 특별히 눈에 띄는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명예에 대한 갈망일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비록 용기를 북돋는 데 부적합한 동기이긴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 용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 기반한 올바른 원칙에서 비롯된 용기는 허세나 자랑이 아니라 고귀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곧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8:17; 요한계시록 3:21).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함을 증명할지 시험하시기 위해 철저히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용기는 항상 올바른 길, 곧 주님의 길로 행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권면

이 올바른 용기에 대한 권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옳은 일, 즉 주님의 뜻으로 이해되는 일을 할 만큼 용감해야 합니다. 그러한 용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비록 네 동기가 종종 오해받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든, 장차 올 세상에서든() 상을 받게 될지라도 옳은 것을 위해 선한 용기를 가지고 서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모든 율법을 삼가 지켜 행하라. ...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7

용기를 내라는 권면은 그리스도인 사업가에게도 해당됩니다. 세속적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네 사업은 실패할 거야. 사업 광고를 하면 안 돼.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은 네 가게를 찾지 않을 거야. 거짓말이 넘쳐나는 곳으로 갈 테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조언을 따른다면 사업은 더 크게 할 수 있겠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의로운 성품의 개발과 실천을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는 주님께 전념한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상황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각자는 올바른 원칙을 옹호해야 하며,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 소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요한복음 3:21; 야고보서 1:22,25). 원칙이 걸린 문제에서는 우리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이러하니, 나는 내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내 의무라고 느끼는 일을 하는 데 만족할 것이며,

타인을 강요하려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믿게 된 원칙들에 대해서는 신실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자신에게 말하는 이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직과 진실함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데 용기를 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로마서 12:17

믿음에 비례하는 용기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의 삶에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바른 용기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안에서 발휘될 기회를 찾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용기이며, 이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용기입니다. 오직 이들에게만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허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이렇다: 담대하라. 이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길이다. 주님을 바라고 그분께 충성하는 자들은 그들의 충성과 믿음에 비례하여 담대할 것이다. 마태복음 9:29

이런 용기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는 나를 위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리라. ... 너희가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가 말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니라.” (마태복음 10:18,19). 여기서 주된 뜻은 “당신들이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신성한 능력에 의지하며 용감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지혜를 주시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제안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경험을 듣는 것일 수도 있으며, 특히 도움이 될 성경 구절이 마음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의 신뢰가 온전히 주님께

있으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6

주님께서 위의 말씀을 하신 대상은 배운 바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간다는 것은 당연히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그 위대하고 배운 자들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제자들은 매우 겸손했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당시 교육은 오늘날에 비해 훨씬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확신은 제자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곤경이나 어려움에 처할 때면, 성경이 우리에게 확언하듯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와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구원하시느니라" (시편 34:7). 이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고 차분하게 하며, 우리가 그분과 가까운 관계에 있음을 알기에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각 경험 속에서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할 만큼 지혜롭지 못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일이나 저 일을 어떻게 다스리실지 알지 못합니다.

“믿음은 그분을 굳게 신뢰할 수 있다”

초기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예언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깊이 고민했습니다.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그분께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마태복음 16:16). 그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께 해가 미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요한복음 6:53-56)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특이한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6:2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유대인 산헤드린 앞에 끌려가셨을 때, 그분의 능력과 용변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며 반박과 비방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크게 당황하며 놀라고 의아해했습니다. 그 후 그들의 스승은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앞에서는 분명 주저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로 흘러가자 제자들은 다시 한번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취하신 이러한

행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필수적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대가, 즉 완전한 인간의 생명이 "모든 사람을 위한 랜섬"으로 제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5,6; 고린도전서 15:22; 로마서 5:18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상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 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든 최선이라면,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경험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섭리에 확신을 가지므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실수하실 만큼 지혜롭지 않으시며, 허락하신 일에는 반드시 동기나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주님 눈에 소중히 여김을 받고 특별히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시편 17:8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 이유를
분별할 수 있든 없든,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길이 험하고,
일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담대하라. 그가 네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바라라.” 시편 27:14